

#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 “강소기업이 해답이다”

###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 문동신 군산시장, 국회 방문 정부추경안 신속 처리 호소

문동신 군산시장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폭 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시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GM군산 폐쇄 발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반영과 2019년 국가예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지역국회의원인 김광영 의원을 만나 지역현황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후 정부 추경과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군산 출신 국회의원인 차이에, 박주현, 김중로, 소병훈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군산의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추경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대책 자금이 서둘러 집행될 수 있도록 해결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경태 기획재정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당 부산 사하구, 장병원 산업통상



문 시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 추경과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위원장은 “문 시장이 정부추경안 통과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폭 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시장은 “군산경제를 회복할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다면서 정부추경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호소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다 많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유선우 군산시의원 예비후보 공약 발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군산조산소 가동중단과 올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해결을 위한 색다른 이색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시 기초의원 바 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선우 예비후보는 15일 현대중공업 및 GM대우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산을 위한 지역토착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 유치 등을 담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유선우 예비후보는 “먼저 군산 내 지역토착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시킬 여러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기업들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적이고 기업환경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군산시 지역토착인 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기업에 맞춰 지원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유 후보는 “대기업도 좋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큰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어렵게 현실”이라며 “수출, 고용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우수한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토착기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확대

### 익산시,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 20만매 보급 완료

### 전북 최초 시민이 체감 미세먼지서비스 제공

### 시각적매체를 통한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제공도

익산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 황사마스크 20만매를 보급완료 했다.

이는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응급대책으로 건강취약계층인 7세 이하 어린이 1만3,000명과 65세 이상 노인 5만 3천명 등 총 6만 6천명에 대하여 1인당 3매씩 보급했다.

이번 황사마스크 보급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

최양욱 복지환경국장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은 미세먼지에 민감해 중점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익산시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실제 활동시간이 많지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

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는 시민들이 야외 활동 시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체육공원 축구장 단상지붕 불대에 LED등으로 표시하는 미세먼지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미세먼지 경관조명은 미세먼지 농도별 좋음(파랑), 보통(녹색), 나쁨(노랑), 매우나쁨(빨강)의 4단계로 4가지 색깔로 표시하여 야외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시각적 매체를 제공해 미세먼지에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로 5월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살수차 3대를 오전7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8시간 운행한다. 운행구간은 차량운행이 많은 시내 간선도로 3개구간 면지역 3개구간으로 나누어 반복운행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익산시, 내일 화재대피훈련

익산시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7일 불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시 화재대피훈련은 익산시 청내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불시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관내 소방서와 연계하여 살수차, 응급차 등이 동원되는 등 실제와 같은 상황을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지진 및 화재 등으로 재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을 맞아 평소 체계적인 훈련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을 함양하고자 이와 같은 훈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자치행정국

### 무료 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군산시 자치행정국 김인생 국장을 비롯한 12명의 과장급 공무원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인생의 스승이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나운중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공무원이 출산수밖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봉사를 펼쳐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과 조금이나마 온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들은 준비해 간 과일과 함께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배식봉사를 했을 뿐 아니라 설거지까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했다. /익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전국체전 대비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익산시는 다가오는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시 청소지원과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기존의 상시단속반 외에 특별단속반 2개반을 추가 편성하여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쓰레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순회단속도 실시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 반려견이 주는 심리적 장점 · 특수교육에 접목

### 원광대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

### 동물교감교육 학술대회 열려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가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특수아동을 위한 동물교감 치유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서울 아트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기술 개발로 ‘아동 인성 향상을 위한 동물교감교육 모델 개발’ 주관책임 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과제를 수행 중인 원광대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는 “동물교감교육에 관한 연구 성과 확산과 향후 연구 방향 정립을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수아동을 위한 동물매개치료 효과(원광대 김



‘특수아동을 위한 동물교감 치유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서울 아트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옥진 교수, 장애아동의 이해(아이보센터 김해미 박사), 심리운동과 승마치료(경희대 박숙경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장 김옥진 교수는 “반려견이 주는 정서적 심리적 장점을 특수아동 교육에 접목하여 효과적인 동물교감교육 프로

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수행하는 ‘아동 인성 향상을 위한 동물교감교육 모델 개발’ 과제의 연구 방향 정립과 동물교감과학적 접근 및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www.jjmaeil.com